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86 호

2024년 1월 24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 월호 요약
2. 2023 년 ESG 멘토링 특별 세션 결과 공유
3. UNGC Open Day 2024: 회원사 간담회
4. UNGC Open Day 2024: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 본부 소식

1. 세계경제포럼(WEF): 2030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을 위한 5 가지 방법
2. UNGC 2023 년 5 대 주요 성과
3. 생활임금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6 가지 조치
4. UNGC 및 UNODC, 기업 청렴성 강화 및 반부패를 위한 기업 행동 촉구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동아쏘시오홀딩스

■ UNGC & 회원사 뉴스

1. 한솔섬유,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2. 피앤씨랩스, 코스메틱 원단 업체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3. HMM, 배출량 계산하는 '탄소계산기' 개발
4. 네이버, 6개월간 1100여곳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도와
5. 신용보증기금, 올해 P-CBO 4.8조 발행..."1545개사 지원"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 월호 요약



VOLUME 40 | January 2024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2024 글로벌 ESG 동향 전망

2024년 새해를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10대 글로벌 ESG 트렌드를 조망합니다.

2023년은 경기침체로 ESG 투자는 주춤했지만, 공급망 실사법,
공시 의무화 등 ESG 규제 흐름이 강화되는 한 해였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10가지 전망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글로벌 컨설팅 기관 및 평가사의 자료,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아젠다 및
국내외 다양한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ESG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4 글로벌 ESG 전망
2. ESG 최신 동향
3. 전문가 인사이트
"COP 28 인사이트 & 2024 ESG 전망"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Monthly Insights 1월호를 통해 '10대 글로벌 ESG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각 이슈별 최신 글로벌 동향 및 언론 매체에서 조망한 ESG 트렌드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024년 기업의 ESG 전략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024 글로벌 ESG 전망

1. 규제 및 공시 법제화로 기업 대응노력 가속화

지난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연합(EU)에서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정이 공개되어, 올해는 기업들의 대응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ISSB의 ESG 공시 기준인 IFRS S1(지속가능성)과 S2(기후)는 25년에 시행되어, 데이터 및 보고 채널 관리 등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1월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Korea Leaders Summit에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파트릭 드 캄부르(Patrick de Cambour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은 지속가능성 및 재무보고를 통합하고, 다른 공시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반영한 EU 공시 제도의 방향성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23 Korea Leaders Summit
파트릭 드 캄부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의장

[영상 보기](#)

또한, 지난 6월 글로벌 표준 ISSB의 최종안이 공개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제도화와 기업 평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이 ISSB 기준에 기반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기후 공시를 우선순위로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ISSB의 공시 기준은 기업의 공시 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가사 및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

본문 '2024 글로벌 ESG 전망'을 통해, ▲규제 및 공시 법제화로 기업 대응 노력 가속화, ▲ 공급망 실사 규제와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 ESG 데이터 관리 고도화, ▲ 그린워싱 방지 및 모니터링 강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정의로운 전환, ▲ Net Zero 실질적 이행 강화, ▲ '네이처 포지티브' 생물다양성 모멘텀 확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 가치 확산 및 이행, ▲ 반부패 대응 위한 기업 역할 강조 등 10 가지 부문별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ESG 최신 동향



WBA 2023 젠더 인사이트 리포트

자세히 보기



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도구

자세히 보기



2024 글로벌 ESG 채권 전망

자세히 보기

또한, 'ESG 최신 동향'에서는, 지난 11 월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에서 발간한 「2023 젠더 인사이트 리포트」를 요약하여 성평등 증진 노력 기업들에 대한 인사이트, 제 10 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CoSP10)에서 제시된 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도구, 2024 글로벌 ESG 채권 전망을 살펴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COP28 인사이트]

Q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이번 COP28는 "3I: Inevitable, Innovative, Inclusive"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Inevitable transition**"이다. 첫째, COP28 최종합의문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최종 합의되어 포함되었다. 둘째, 선형 경제(linear economy)에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과 셋째, 네이처 네거티브(Nature-negative)에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 전환을 "불가피한 전환(inevitable transition)"으로 정의하겠으며, 이러한 전환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행수단은 디지털로 변화해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Innovative Technology**"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재원이 필수이다. 최종 합의문에는 원자력과 핵융합,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라는 용어가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최초로 사용됐다. 교토의정서 체제하에 추진된 청정개발체제(CDM)*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파리협정 체제하에 처음으로 원자력과 CCUS 등 저무탄소 기술이 포함되었다. 또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COP27에 이어 COP28에서 본 기금을 처음 출연하였다.

세 번째는 "**Inclusive engagement**"다. 기존의 당사국총회는 정부간 회의로서 민간 참여는 사이드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 그랬던 민간 참여가 이제는 메인 이벤트인 국가간 협상보다 더욱 비중이 커졌다. 특히 민간 기구가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저(무)탄소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 관련해 탄소 중립의 이행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부각됐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업 및 시민사회 등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사이트'에서 전(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유연철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제 28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과 더불어, ▲2024 년 글로벌 ESG 전망을 조망하며 한국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유럽증권시장청(ESMA), ESG 펀드 명칭에 '전환' 포함한 개정 지침 내놓아

○ 지난 12월, 유럽연합(EU)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펀드 명칭에 'ESG', '지속가능성'에 이어 '전환(Transition)'을 포함시키는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지 1년 1개월 만의 개정으로, 향후 ESG 관련 용어 사용 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비중 50% 임계 값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란 특성을 충족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투자 비율은 80%가 되어야 하며, ▲파리 협정 연계 벤치마크(PAB) 제외 항목을 적용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2에 정의에 따라 투자를 운용해야 합니다. 지침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전환' 관련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도입되었는데, ▲전환 관련 용어 사용시 80% 투자 기준을 유지하고, 기후전환벤치마크(CTB) 제외 항목 2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최종본은 2024년 2분기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를 통해, ▲유럽증권시장청 (ESMA)에서 발표한 ESG 펀드 명칭 개정 지침, ▲2023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10% 달성 전망, ▲BBC 에서 조망한 '2023 년 인류가 기후와 자연을 위해 만든 돌파구 9 가지' 등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2023년 ESG 멘토링 특별 세션 결과 공유

2023년도 ESG 멘토링 특별 세션 결과 공유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소: 이비스 엠배서더 서울 인사동 1F 연회장(TASTE)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2월 13일(수) 2023년 ESG 멘토링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으며, 총 17개의 기업에서 40여 명이 넘는 기업 실무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특별 세션에서는 몇몇 멘토 기업의 ESG 멘토링 및 ESG 업무 추진 경험을 들어보고, 2023년 ESG 멘토링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참여 소감 공유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기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애큐온캐피탈, 유한킴벌리, 콜마비앤에이치, 팩텐씨앤아이,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DRB동일, HL만도, KB증권, KCC글라스, LG디스플레이 총 17개사(가나다순).

1. 인사말

장한별 UNGC 한국협회 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특별 세션은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UNGC가 2022년 런칭한 ESG 멘토링 프로그램이 2023년에는 확대 진행되었음을 소개하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풍부한 학습 및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낸 7개의 멘토기업과 31개의 멘티 기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ESG 멘토링 프로그램이 경험이 풍부한 회원사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계속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장한별 UNGC 한국협회 과장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2. ESG 멘토링 참여 멘토 기업 특별 세션

이어서 진행된 <ESG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참여 기업 특별 세션>에서는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임재문 LG디스플레이 팀장, 송재경 포스코이앤씨 섹션리더,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가 패널로 참석하여 ESG 멘토링 참여 소감과 관련 업무 경험 및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



ESG 멘토링 참여 멘토 기업 특별 세션

임재문 LG디스플레이 팀장은 UNGC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며 “내부 역량을 점검하고 내부 관심을 더욱 유도함으로써 사일로(silo)에 갇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ESG 경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은 경영진의 관심을 끌 만한 과제에서부터 시작해 UNGC 등 외부 전문가 및 규제 트렌드를 활용하여 ESG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ESG는 ‘경영’이라는 말과 비슷하다”며, 유관 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서간 경쟁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동기부여 요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들이 선언한 여러 목표를 실질적으로 점검 및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언급하며, 공시, 공급망 실사, Scope 3 등 주요 사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재경 포스코이앤씨 섹션리더는 ESG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의 ESG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보완점을 찾고 ESG 실무자들과 공감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분야별 임원급 회의체를 설립하는 등 규제 대응에서 더 나아가 ESG 경영을 비즈니스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행해온 여러 시도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ESG 경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향성은 확고히 하되, 환경 및 사회적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사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업종이 아니라도 기업 유형별 또는 사전에 파악한 공통 니즈에 기반한 과제별 멘토링이 가능하다면 ESG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는 ESG 멘토링 프로그램이 “미디어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없는 ESG 실무를 논의할 수 있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관련 실무자들의 실제 경험을 확인하고 ESG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DRB동일은 중견제조기업으로서 △ 원가 피해 최소화, △ 끈끈한 팀워크 형성, △ 유관 부서 업무 협력, △ 내부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경영진을 설득하고 ESG를 기업 운영에 내재화해 온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4년 ESG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 1:1 멘토링, 주제별 심화 멘토링, 멘티 스터디 및 발표 진행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임재문 LG디스플레이 팀장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



송재경 포스코이앤씨 섹션리더

3.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이어서 1년간 UNGC 한국협회의 ESG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수고한 멘토 기업과 담당자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G디스플레이



유한킴벌리



포스코이앤씨



한국가스기술공사



DRB동일



특별 세션 단체 사진

끝으로 참여사들은 만찬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및 UNGC 참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년도에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원사들은 본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장한별 과장 (070-4327-976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UNGC Open Day 2024: 회원사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UNGC 한국협회는 회원사 담당자분들을 초청하여 2024년 UNGC 주요 활동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UNGC 운영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ESG 경영 관련 다양한 활동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UNGC 「OPEN DAY」 개요 -

• 일시: 아래 3개 날짜 중 택일

회차	일시	시간
1회차	2024. 1. 30. (화)	14:00 - 15:30
2회차	2024. 2. 15. (목)	14:00 - 15:30
3회차	2024. 2. 28. (수)	14:00 - 15:30

• 장소: 온라인 진행 (신청자 대상 Zoom 링크 송부 예정)

• 대상: UNGC 회원사 실무진

• 내용: 2024년 UNGC 주요 활동 및 참여 안내, 본부 성과 공유, 질의 응답, 회원사 네트워킹 등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이 안 될 경우, 참석희망 날짜와 함께 소속(기업·기관명 및 소속부서/성함/직함/ 이메일/전화번호를 적어 gckorea@globalcompact.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49/50, gckorea@globalcompact.kr)

[참여 등록하기](#)

[자세히 보기](#)

4. UNGC Open Day 2024: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24 UNGC 「OPEN DAY」 안내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온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확산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시작과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UNGC 가입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초청하여 UNGC 회원사 혜택,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UNGC 「OPEN DAY」 개요 -

• 일시: 아래 2개 날짜 중 택일

회차	일시	시간
1회차	2024.2.1.(목)	14:00 - 15:30
2회차	2024.2.20.(화)	14:00 - 15:30

- **장소:** 온라인 진행 (신청자 대상 Zoom 링크 송부 예정)
- **대상:** UNGC 가입 관심기업 (기업/기관별 최대 3인)
- **내용:** 2024년 UNGC 주요사업 및 회원사 혜택, 가입절차 및 연회비 정책, 이행보고서(COP) 작성 안내, 질의응답 등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50/49, gckorea@globalcompact.kr)

[참여 등록하기](#)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세계경제포럼(WEF): 2030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을 위한 5 가지 방법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지난 15 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개막하였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지속가능금융 및 투자’입니다. 특히 WEF 에서 발간한 「2024 세계 위기 보고서」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 및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향후 10 년간 기후 재앙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다양한 형태의 격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9 월 ‘유엔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 SOTF)’ 및 ‘미래를 향한 약속’ 개최를 앞두고 공동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에서, WEF 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리더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속가능금융 및 투자에 관한 **Forward Faster 행동 지침**」에 기반한 기업의 2030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을 위한 다섯가지 필수 전략을 소개합니다.

1. **SDG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을 채택하세요.** UNGC 가 발족한 ‘SDG 를 위한 CFO 연합’의 ‘CFO 원칙’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원칙은 SDG 투자 및 금융을 아우르며, SDGs 를 기업 재무에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총체적인 기업의 금융 전략이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 2030 목표를 수립하세요. 기업의 총 투자 규모 대비 SDG 기반 투자의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여, 명확한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2030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향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SDG 에 연계된 투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SDG 기반 투자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결의를 표명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투자 내역은 회사의 연례 보고서 및 다양한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투자 내역에 대한 투명성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기업의 책임감을 동시에 높여주며, 이 신뢰와 책임감은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표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과 SDG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재무의사결정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영향력 간 얼마나 긴요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외부 기관을 통해 수립한 목표를 검증받으세요.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외부 검증을 실시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 속에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SDG 달성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WEF 를 통해 지속가능금융이 어떻게 기업과 지구가 상생하는 미래로 우리를 이끄는지 UNGC 와 함께 알아봅시다.

[자세히 보기](#)

2. UNGC 2023 년 5 대 주요 성과



지난 한 해를 회고해보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2030 의제 발전을 위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기후 문제, 사회적 불평등이 현 시점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2024 년 야심 찬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작년 우리가 경험했던 도전 과제들을 돌이켜보며 올해 기업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행동력, 신뢰성 증진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인 UNGC 의 2023 년 다섯 가지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유의미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UNGC 의 2023 년 주요 성과를 소개합니다.

1. Forward Faster 의 영향력 확대: 지난 9 월 「리더스 서밋」 계기 출범한 Forward Faster 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Forward Faster 에 동참하면서, UNGC 는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UNGC 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Forward Faster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2. COP28, 그리고 ‘하나의 UNGC(One Global Compact)’: 지난 11 월 30 일 ~ 12 월 13 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 28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UNGC 는 10 개 지역협회와 협력하여 40 개 이상의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기업들이 2030 의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 활동에 참여하고, 이번 COP28 계기 처음 개최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관련 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UNGC 는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업의 참여 증진을 위해, Forward Faster 및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 연합(ABLCL)'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협의회와 함께 '하나의 UNGC'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3. 네트워크 확장: 2021-2023 전략 출범 이후, UNGC의 전 세계 회원사 수가 60% 증가하여 현재는 총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는 참여 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지난 3년간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체 회원사 유지율은 95%로, 회원사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은 회원사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 지역 허브 글로벌 확산: UNGC는 2021-2023 전략 출범 이후, 아부자, 방콕, 코펜하겐, 두바이, 파나마시티에 허브를 설립하여 지역협회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초기 목표를 훨씬 초과하여 100개국에 걸쳐 62개의 지역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담당자 15명이 추가 영입될 예정입니다.

5. 아카데미 등록자 수 증가: 2023년 95,000명 이상이 UNGC 아카데미를 수강했으며, 4.4/5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략 대비, 전체 180여 개 참여국에서 총 260% 증가한 수강 기록입니다. COP28 결과 디브리핑, 2024 아카데미 포토폴리오 등을 포함한 아카데미 코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Forward Faster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시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도구 및 자원의 활용을 통해 더욱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UNGC는 2030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더욱 더 빠르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COP28 계기 개최된 「기후에 대한 배려」 세션에서 UNGC 이사회 부의장 폴 폴먼(Paul Polman)도 기업의 행동 촉구 맥락에서 “불편하지 않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UNGC는 참여사들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이룬 성과를 함께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orward Faster에 참여하여 귀사의 비즈니스, 전 세계 인류,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보호하는데 동참하세요.

[자세히 보기](#)

3. 생활임금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6 가지 조치



전 세계 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적정 생활 유지를 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보장은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들에게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생활임금 보장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기업은 전 직원에게 생활임금 보장을 약속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의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1. 생활임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의 연관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맥락에서 생활 임금이란, 최저임금을 넘어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소 및 적절한 생활 수준 영위를 위한 소득을 의미하며, 생활임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노동 관행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2. 2030년까지 기업내 전 직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서,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합니다.

2030년까지 생활임금 100%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지는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공급망 및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3.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실제 임금 수준과 생활임금간 격차를 확인합니다.

생활 경비, 현지 인건비, 현지 시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생활임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현실적으로 생활임금 전략을 설정 및 조정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와 긴밀히 소통합니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통보 방식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임금 논의 관련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회, 기업협의회, 노동조합 등의 이해관계자 또한 생활임금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생활임금 약속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이고 투명한 전략과 임금지급 프로세스를 개발 및 적용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합니다.

임금 격차 해소 목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임직원의 책임감 증진과 더불어, 목표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 이해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투명한 이행은 지속가능성 원칙에 부합하며, 조직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6. 임금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정기적으로 임금의 적정 수준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임금이 최소 생활비를 하회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해당 절차는 모든 직원에게 일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은 적시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SDG 8*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임금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나아가세요.

* SDG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자세히 보기](#)

4. UNGC 및 UNODC, 기업 청렴성 강화 및 반부패를 위한 기업 행동 촉구



지난 12 월 11-15 일, 미국 아틀란타에서 진행된 「제 10 차 당사국 총회(CoSP)」 계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부문 공동노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CoSP 는 반부패 부문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이자,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올해는 민간 부문 포럼이 행사에 포함된 첫번째 해로써, UNCAC 와 함께 UNGC 의 열 번째 원칙(반부패) 이행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 청렴성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패는 세계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상당한 초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악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부패는 거래 비용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UNCAC 에 기반하여 2004 년 채택된 UNGC 의 열 번째 원칙은, UNGC 회원사들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및 공급망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기업은 시민사회, UN 및 정부와 협력하여 보다 더 투명한 세계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CoSP 개최 기간 동안, UNGC 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 달성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 경제 구축을 위해, 각 국 정부가 반부패 및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중요 원칙으로 도입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동 촉구 서명문(Call-to-Action)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 포럼에서는 비즈니스 리더, 최고 법무 책임자, 지속가능 거버넌스 및 기업 청렴성 전문가, 공공 부문, 시민사회, 학계 및 국제기구의 주요 이해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를 통해 청렴성 확보를 위한 방법과 투자자, 고객 및 규제 기관이 이러한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국제 투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 부패로 발생한 문제 해결방안,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게이트키퍼 (gatekeeper)의 역할, 부패 발생시 재정비 방안 등 기업의 사후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이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동향 공유, 모범 사례 소개, 우선순위 과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UNODC의 가다 왈리(Ghada Waly) 사무총장은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기업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기업이 더 회복 탄력적이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성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운영체제 및 공급망 전반, 그리고 정부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모든 상호 작용에서 기업 청렴성을 구현함으로써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반부패 부문 관련 민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반부패를 위한 거대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집단 행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리더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과 경제 및 글로벌 커뮤니티 전체에 미치는 부패의 위험을 인지하고, 지역사회, 파트너,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 분야 전역에 걸쳐 윤리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패에 함께 맞서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민간 부문 포럼에서는 기업 청렴성 확보를 위해 아래 발간물 및 실용적인 도구가 발표되었습니다.

- [기업 청렴성 강화 관련 정부 주도 조치에 관한 UNODC, UNGC, OECD 합의안](#)
- [UNODC 가이드북, '청렴의 길을 향하여: 기업 청렴성 및 관련 규정 준수'](#)
- 기업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UNGC '[혁신적 거버넌스 기업 툴킷](#)'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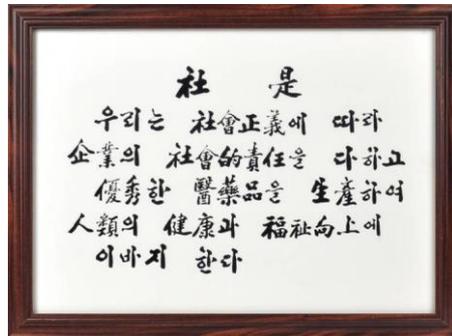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동아쏘시오그룹 전체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 목표에 따른 그룹의 인적 자원 및 자금 투입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932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했던 창업주 강중희 회장의 ‘가마솥’ 정신은 사람의 바른 도리를 행하는 ‘정도’, 책임을 다하는 ‘성실’, 나눔을 실천하는 ‘배려’의 창업정신으로 이어졌으며, 강신호 명예회장은 1975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사시(社是)를 발표하여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동아쏘시오그룹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 실현’을 곧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하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끝없는 도전’이라는 미션 아래 사회책임경영 전략 지향점으로 ‘그룹사별 사회책임경영 추진’, ‘책임 있는 발전’,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로 정하였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정도경영’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글자, 바른 정(正)이 아닌 그룹 고유의 창업정신을 상징하는 글자, 가마솥 정(鼎)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 경영철학인 ‘정도경영(鼎道經營)’은 곧 ‘사회책임 경영’입니다.





<동아쏘시오그룹 사회책임경영 5 대 카테고리>

3. 사례

3-1 동아쏘시오홀딩스 본사 사무조직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동아쏘시오그룹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환경 규제 및 정책을 성실하게 지키는 한편, 환경경영 체계 고도화 및 환경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며 환경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 ST 를 비롯한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3 년 그룹 전반에 대한 환경리스크 관리와 환경경영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중심으로 동아 ST, 동아제약 본사 사무 조직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 통합 구축 및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목표

<p>01 종이 사용 최소화</p>	<p>02 신재생에너지 활용</p>
<p>03 플라스틱 제로화</p>	<p>04 친환경제품 사용 확대</p>
<p>05 친환경 기업 협업</p>	

3-2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확대(SCOPE 1, SCOPE 2, SCOPE 3)

동아쏘시오그룹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잡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에스티팜, 수석의 온실가스 인벤토리(Scope 1, Scope 2) 구축을 시작한 이후, 2021년 전 그룹사에 대해 Scope 1, Scope 2를 비롯하여 Scope 3까지 포함한 인벤토리 구축을 완료하고 제 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SCOPE3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온실가스 배출(Scope 1, 2, 3) 관련 정보를 그룹 통합보고서에 담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3-3 공급망 체계 구축

동아쏘시오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공급망 ESG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 구축

동아쏘시오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그룹 공통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 제정 및 선포를 시작으로 그룹의 주요 제품, 서비스 공급망 범위를 설정하고, 공급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며,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자가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운영하는 정도경영홈페이지 내 '협력사 공급망 관리 자가진단'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ESG 실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그룹 공통으로 공급망 ESG 관리가 필요한 반부패, 인권 및 노동관행, 환경영역에 대한 5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 리스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시작으로 공급망 ESG 체크리스트 기반의 '공급망 ESG 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전 그룹사로 확대하며 공급망 ESG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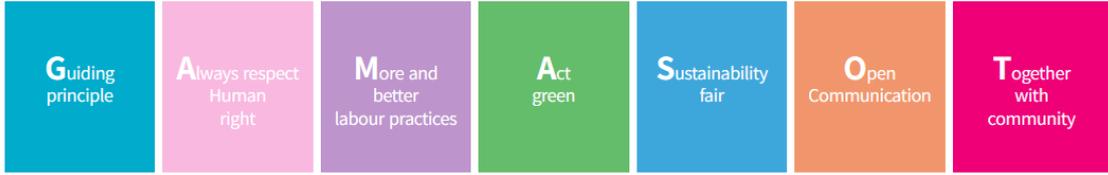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0년 UNGC에 가입하며 10대 원칙을 지지 및 준수할 것을 선언한 이후, UNGC 한국협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UN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ISO26000 7대 주제에 따라 GAMASOT 7대 슬로건과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GAMASOT



중대 이슈	Context	Performance	UN SDGs
제품 안전성 강화	새로운 질병이 등장함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제약회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는 안전과 품질에 가치를 두어 체계적으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식품료/의료기기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품 전 주기를 고려한 안전성 원칙을 경영과정에 내재화 -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 필요사항 파악 및 제품 패키지 리뉴얼 지속 진행 - 제품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원재료 및 제조공정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사항 파악, 개선활동 진행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국제적으로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에 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 및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준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동아보시오희olding스 중심으로 ABMS(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 획득, 관련 지침 및 제도 마련, 준법경영 체보 시스템 운영 등 추진 - 전 그룹사 AMBS 구축 및 ISO 37001 인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까지 전 그룹사 ABMS 구축을 목표로 2022년 동아오츠카 및 수석 ABMS 구축 완료, 2023년 한국신동공업, 동천수 ABMS 구축 예정 - 2023년 예스티젠바이오 ISO 37001 인증 획득 예정 - 임직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법 통제와 지원을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사전 리스크 관리, 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ESG 및 정도경영 이념 추구 	
사업장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에서는 안전 리스크를 예방 및 완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대응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ISO 45001 인증 획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행 및 위험요인 개선,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 그룹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동아ST, 동아제약, 예스티젠바이오 공장 인증 획득 - 2023년 동아ST 송도캠퍼스 3분기 인증 예정 	

<p>연구개발(R&D) 및 기술혁신 강화</p>	<p>이해관계자들에게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 강화는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약품 개발은 사회에 건강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에는 이를 통해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ST의 경우 항암, 면역/퇴행성 뇌질환, 내분비, 소화기, 근골격계를 중점 치료 영역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추진 - 2022년 12월, 카나프테라퓨틱스와 이중융합 항체 기전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계약 체결하고 공동연구 진행 중 · 에스티팜의 경우 올리고핵산치료제, mRNA CDMO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전자 치료제 개발 확대 - 2022년 에이즈 치료제 STP0404 임상1상 완료 및 미국 FDA 임상 2a상 승인받으며 안정성과 내약성 확보 - 항암제 STP1002(Basroparib) 미국 내 3개 임상 사이트에서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내약성 확인을 위한 용량 증량 임상 시험을 진행 중 	
<p>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p>	<p>기업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분배되는 것은 기업이 지속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보고서를 통해 각 그룹사 경제 가치 창출 및 이해관계자별 분배 현황 보고 	
<p>지속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p>	<p>지속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 어떠한 지속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동아쏘시오그룹의 경영 원칙으로 삼고 유럽/미국 최신 GMP 가이드라인 및 요구사항 준수, cGMP 업그레이드, 정기적 모니터링 등 다양한 품질경영 활동 추진 · 의약품 복용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관련 규제를 준수하며, 사내 검토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 정보에 대한 사전 점검 진행 · 에스티팜, 2022년 5월 반월 공장 올리고동 신약 승인 전 제조소에 대한 미국 FDA 실사 진행, 8월 무결점 등급(NA)을 받으며 아시아 최초로 올리고 제조소에 대한 FDA cGMP 인증 획득 	 
<p>인권보호 및 다양성 존중</p>	<p>국내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 내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인권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경영 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프레임워크 구축, 인권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2022년 12월, 전 그룹사 인권경영 선포 · 구성된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그룹사 고층 상당실과 그룹 차원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인권침해 접수 채널 및 구제 절차) · 2024년 상반기 '인권 다양성 보고서' 발간 예정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한솔섬유,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한솔섬유(대표 이상석)가 지난 12월 22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 회원사가 되어 ESG 경영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한솔섬유는 UNGC 10대 원칙들을 자사의 경영전략에 통합함으로써, 내년부터 UNGC 이행보고서인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를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대 한민국 OEM 의류수출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어패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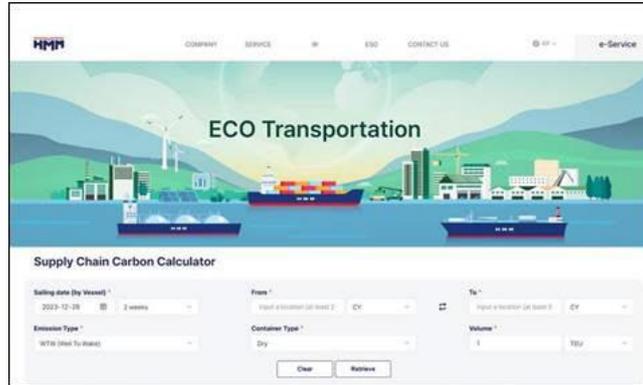
2. 피앤씨랩스, 코스메틱 원단 업체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피앤씨랩스(대표 함진수)는 9일 서울 중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에서 UNGC 가입 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PNC Labs는 국내 마스크팩 및 패드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서, 글로벌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K-Beauty의 발전과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변화와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3. HMM, 배출량 계산하는 ‘탄소계산기’ 개발



-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HMM 공급망 탄소계산기는 화물의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선박은 물론 철도, 트럭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저탄소 연료 구매 및 사용을 통해 선박 운항 시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탄소 감축량을 거래하는 그린 세일링 서비스(Green Sailing Service)도 새롭게 시작하여, 화주 및 관련 기업의 스코프 3(Scope 3)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한다.

이데일리

4. 네이버, 6개월간 1100 여곳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도와



- 네이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6개월간 강릉·부산·창원 등 7개 지역에서 1100여곳 이상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육성했다고 29일 밝혔다.
- 네이버는 7년째 프로젝트 꽃을 통해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주경제

5. 신용보증기금, 올해 P-CBO 4.8 조 발행... "1545 개사 지원" 카카오뱅크, 無 영업 점포로 1 년간 총 1 만 3000 톤 탄소 '감축'



-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10 차례에 걸쳐 총 4 조 8000 원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했다고 22 일 밝혔다.
- 신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도입해 단독으로 녹색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1555 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 1 년간 최대 4.2%포인트(p)의 이자 지원 혜택까지 제공해 기업의 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뉴스 1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12 월 20 일부터 1 월 23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2 개사 입니다.

- OCI 홀딩스
- 동원금속(주)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20 일부터 1 월 23 일까지 30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2-1. CoE (총 2 개)

- 사람과세계경영학
- 한국품질재단

2-2. CoP (총 28 개)

- GS 건설(주)
- GS 칼텍스(주)
- IBK 기업은행
- LS ELECTRIC
- NH 투자증권(주)
- 경상북도개발공사
-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 디알비동일
- 롯데웰푸드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 에코나인
- 인천시설공단
- (주) 이노플
- 주식회사 연우
- (주)신한은행
- (주)씨제이이엔엠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케이씨아이
- 코웨이(주)
-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 한국거래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콜마 주식회사
-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한전 KDN(주)
- 현대제철 주식회사

※ 지난해 새롭게 런칭한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디지털 플랫폼이 11월부터 재개되어, UNGC 회원사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3월 1일까지 '23년도 CoP 제출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오픈 지연으로 인해 '23년도 CoP 제출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어, CoP 제출 여부에 따라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또는 "제명(Delisted)"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24년도 CoP'는 의무 사항으로 4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내에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 레벨을 선택한 단체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